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 만든다

## 시, 국제안전도시 방법폭력예방·학교어린이안전분과위원회 간담회 가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의미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나선 전주시가 방법 분야와 어린이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2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방법·폭력예방학과·어린이안전 분야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전주 만들기를 위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실무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국제안전도시 지역사회의 손상은

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협력해온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간담회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최종관문인 현지실사가 오는 5월초로 예정된 가운데 전주시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국제안전도시 방법폭력예방·학교어린이안전 실무분과위원회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유관기관과의 민관 협력을 바

탕으로 △지역사회 안전증진 관계자와의 미팅 △안전도시사업 보고회 및 실사 평가회 △안전증진 프로그램 현장방문 등으로 진행되는 현지실사를 준비해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방법·폭력예방분야의 경우 △방법용 CCTV 운영 △외곽도로 및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폭력예방교육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을 전개해 왔다.

학교·어린이안전분야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 △청소년 보호 사업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어린이 생활안전 실천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다.

남종희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이 앞서서 국제안전도시를 만들자는 목표 하에 시민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내·외에 안전한 전주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 도교육청, 온·오프라인 상시 제안접수 창구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제안제도는 교육정책 및 행정제도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우수제안은 시책으로 도입하고, 제안자에게는 포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행정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활성화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안신청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홈페이지(http://www.je.go.kr, 참여·제안/제안마당)와 우편, 전자 메일(jeam8282@korea.kr), 방문 접수 등 온·오프라인 상시 제안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제도 개선 등 전북교육 발전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연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테마형 공모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학생 제안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완성도가 낮은 아이디어를 댓글 토론을 통해 보완·발전시키는 제안 속성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제출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채택된 우수제안은 경우 장안등급에 따라 포상이 주어진다. 불 채택된 제안의 경우도 심사점수에 따라 제안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가족들의 다양한 제안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다양한 행정 경험을 덧붙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교육가족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전북도 유·무형문화재 지정서 교부 행사. 2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지정 유·무형 문화재 지정서 교부행사에 송해진 도지사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을 비롯한 11건의 유·무형문화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주시 평화1동에 '보행친화거리' 생긴다

### 시, 올해 총 10억원 투입 1.49km 구간 시범사업 추진

전주시 평화1동 일대 보도를 걷기 편하고 휠체어와 유모차도 다니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조성한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약 10억 원을 투입해 평화1동 주민센터와 평화주공 1·2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한 넓적 1.49km의 넓고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을 평탄하게 정비, 도로턱을 낮추는 등 보행친화거리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 연말까지는 평화동 일대를 보행친화도시로 만든다.

평화동은 약 1만3,860명의 인구 중 장애인인 1,618명으로 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일대의 보도는 개설된지 오래돼 파손되거나 평탄하지 못한 탓에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다니기 불편했다. 또 가로수가 보도블록을 깔고 용기되는 등 일반 시민들도 보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평화1동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행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장승배기로와 덕덕1·2길 등 1.975m 구간의 오래돼서 깨져거나 떨어져 나간 보도나 경계석을 교체하는 한편 통행이 불편한 보도에는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 편의를 위해 25개의 도로 턱을 없애거나 낮추고 68곳에는 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되는 등 보행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채규남 기자



## 서거석 "교원 인사 2월로 당겨야"

### "업무추진 계획 시간 벌어"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서거석 예비후보(사진)가 학사운영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28일 자료를 내고 "3월에 업무추진 계획을 세우는 현 학사운영 시스템으로는 새 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는 교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없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힘든 3월이 된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종업식과 졸업식을 12월이나 1월로 옮기고, 교

원 인사발령을 기존 3월1일에서 2월로 당기면 근무지를 옮기는 교사들이 새 학년을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는 신학기 교육 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3월 첫 주에는 학기 내 분산된 창의적체험활동 등 시간을 집중배정할 '책가방 없데이(Day)'를 통해 아이들과 친해지며 수업에 집중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근무지를 옮기는 교사는 기존 근무 학교에서의 업무 마감을 위해 새 학교와 함께 결입발령을 검토할 필요성 있다"며 "이같은 학사운영 개선안은 교원노조와 학부모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적용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기자



## 덕진구, 삼례교 구교 교면포장 전면시행

전주시 덕진구는 삼례교의 바다관 국부 균열 및 포장면 포트홀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우선 전주에서 삼례방향인 구교에 대해 금년 4월 2일부터 5월 11일 까지 바다관에 대한 전면 보수·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삼례교는 1990년에 준공된 구교와 1992년에 준공된 신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완료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다관이 D등급(교량 전체 C등급)으로 판정돼 총 24억원(국비 7억, 시비 17억)을 투입, 구교 바다관 보수·보강 후 초속경 LMC 포장공법으로 전면 포장한다.

공사기간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삼례방향 2개 차로 중 1개 차로씩 교통통제한다. /채규남 기자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